

# kiri Weekly

2014.3.24 제276호

## 포커스

국내 금융업권간 인수합병 추진현황과 시사점

## 글로벌 이슈

EU의회,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안 승인  
중국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감독체계 개혁 동향

## 금융시장 주요지표

**kiri** 보험연구원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이슈와 포커스는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8층 보험연구원 (문의 : 김세환 부장 / 02-3775-9051)



# 국내 금융업권간 인수합병 추진현황과 시사점

전용식 연구위원, 최 원 선임연구원

## 요약

■ 최근 국내 금융산업에 인수·합병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교보생명의 우리은행 인수 검토, KB금융지주의 LIG손해보험 인수 참여 등은 은행과 보험업간의 업권간 인수합병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음. 이와 같은 업권간 인수합병은 시너지 제고, 수익 안정성 확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업과 보험업의 분리 추세에 비춰보면 부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 업권간 인수합병이 업권간 경쟁과 혁신을 유도하여 금융산업 발전으로 이어질 필요가 있음.

■ 금융산업 수익성이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은행과 보험업간 인수합병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임.

- LIG손해보험의 대주주인 LIG그룹은 2013년 11월 19일 보유 중인 LIG손해보험 지분 약 21% 전량을 매각하겠다고 공시함.
  - LIG그룹 계열사인 LIG건설 기업어음 발행과 관련하여 투자자 피해액이 약 2,100억 원에 달하였으며, 이 가운데 1,300억 원의 보상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분 매각을 결정함.
- 에르고다음다이렉트손해보험 대주주인 약사그룹은 보유 중인 에르고다음다이렉트손해보험 지분 100% 가운데 85%(약 100억 원) 가량을 BNP파리바그룹에 매각할 것으로 알려짐.<sup>1)</sup>
  - 또한, BNP파리바그룹은 전략적 제휴를 맺고 있는 신한생명에 에르고다음다이렉트손해보험 지분 15%를 18억 원 가량에 다시 매각할 것으로 예상됨.
- 교보생명이 보험회사 최초로 우리은행 인수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 중에 있음.

1) 한국경제(2014. 3. 5), “BNP파리바, 에르고다음 인수”.

■ 특히 은행 중심의 금융그룹이 손해보험회사 인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이는 금융그룹의 수익성 둔화가 원인인 것으로 보임.

- 저성장·저금리 장기화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은행을 중심으로 금융그룹의 수익성 둔화추세가 두드러지고 있음.
  - 국내 은행의 2013년 총자산이익률(ROA)은 0.22%로 전년의 0.47%보다 절반가량 줄어들었고, 2013년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은 2.82%로 전년대비 3.37%p 하락하였음.
  - 반면 손해보험산업의 FY2013 총자산순이익률과 자기자본순이익률은 1.4%, 9.2%로 전년에 비해 둔화되었으나 은행업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임.
- LIG손해보험은 약 19조 8,000억 원의 자산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원수보험료 기준 시장점유율이 전체 손해보험회사 가운데 4위로 인수기업 결정에 따라 시장점유율 순위가 달라질 수 있음.<sup>2)</sup>
  - KB금융 이외에도 동양생명, 롯데그룹, 메리츠금융 등이 잠재 인수 후보이며 시장에서 평가되고 있는 예상매각 가격은 4,000억 원에서 5,000억 원 사이임.<sup>3)</sup>
-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은행의 자금 이탈, 수익성 둔화가 지속될 경우 은행중심의 금융그룹들의 손해보험업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

〈표 1〉 LIG 손해보험의 수익 현황

(단위: 억 원)

구 분	FY2009	FY2010	FY2011	FY2012	2012. 9	2013. 9
보험영업이익	-1,404	-2,737	-1,009	-2,392	-770	-1,204
투자영업이익	3,586	4,027	4,406	4,711	2,560	2,721
당기순이익	1,483	727	2,090	1,644	1,324	1,030

자료: 금융감독원.

■ 금융그룹의 손해보험회사 인수가 가시화되더라도 금융그룹의 수익성 개선과 은행업과 보험업 겸업의 시너지 효과도 제한적일 수 있음.

- 씨티은행과 트레블러스보험의 합병과 분리사례가 가장 대표적인 은행과 보험겸업의 미미한 시너지 효과를 보여주고 있음.
  - 씨티은행(Citicorp)이 손해보험그룹인 트레블러스그룹을 인수한 1999년부터 2006년까지 합병된 씨티그룹의 비용과 이익증가율은 경쟁사인 JPMorganChase에 비해 상대적으로 악화된 것

2) 2013년 12월 말 기준임.

3) 한국경제(2014. 3. 20), “MBK, ING생명 이어 LIG손보 인수전 뛰어든다”.

으로 평가됨.

\* 영업비용 증가율은 씨티그룹 19.2%, JPMorganChase 4.2%인 반면 영업이익증가율의 경우 씨티그룹 7.9%, JPMorganChase 19.2%로 나타났음.<sup>4)</sup>

- 대등합병에 의한 트레블러스그룹과 씨티은행 경영진의 갈등으로 합병 시너지는 취약했던 것으로 평가됨.

- 2010년 이후 사업구조조정을 지속하고 있는 HSBC의 경우 영국, 아일랜드, 아시아 지역의 보험사업 매각도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바젤III 등 은행의 보험업 겸영에 따른 자본비용 상승이 원인인 것으로 보임.<sup>5)</sup>
- 보험산업에 대한 자본규제 강화와 회계제도 개편 등으로 보험산업의 자본비용이 상승할 것으로 보여 수익성 개선은 제한적일 수 있음.

#### ■ 반면 영국의 Royal Bank of Scotland 그룹은 자회사인 손해보업사업인 Direct Line Insurance로부터 상당한 수익을 창출한 사례임.

- 글로벌 금융위기로 공적자금을 지원받기 직전인 2008년 기준으로 그룹 수익의 21%를 보험사업이 차지하고 있었음.<sup>6)</sup>
  - RBS그룹의 보험사업은 자동차보험 등 손해보업사업이 중심이었으며 RBS그룹이 글로벌 금융위기로 정부로부터 공적자금 455억 파운드를 지원받았음.
  - 공적자금을 지원받게 된 원인은 ABN-AMRO 인수 후 공격적인 대출영업, 거액대출, 부동산대출의 부실이 발생하였기 때문임.
- 공적자금 지원의 조건으로 보험사업 지분의 일부를 시장에 매각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2008년 자본수익률(ROE)이 18.3%에 이르는 보험사업의 높은 수익성 때문임.
  - 1985년 창업한 혁신적 자동차보험회사인 Direct Line Insurance의 창업자금 2천만 파운드를 투자한 RBS그룹은 2003년 손해보업회사인 Churchill을 인수하며 손해보업사업을 확대하였음.<sup>7)</sup>

#### ■ 업권간 인수합병은 업권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혁신을 유도하고 경쟁을 촉진하는 기회가 되어 금융산업 발전으로 이어져야 함.

4) 딜로이트(2011. 3), 「위기이후 글로벌 금융회사들의 성장전략」.

5) 전용식·윤성훈(2013), 「유럽 복합금융그룹의 보험사업 매각 원인과 시사점」, 보험연구원.

6) European Commission(2009. 12).

7) Direct Line은 1985년 종업원 63명으로 시작한 영국의 자동차보험회사임. 자동차보험 언더라이팅 방법을 과거에 비해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전화영업을 통해 자동차보험의 수익성을 높인 보험회사로 평가됨. 2003년 RBS그룹이 Churchill사를 인수했을 당시 RBS그룹의 자회사로 편입되었음.

- 씨티그룹의 사례와 RBS그룹의 사례는 은행업과 보험업의 사업통합이 인수합병 효과를 제고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음.
  - 혁신적인 언더라이팅 기법으로 1985년 사업을 시작한 Direct Line, 키오스크를 통한 자동차보험 보험료 산정방식을 1996년에 도입한 Churchill 등은 혁신을 통해 보험업의 수익성을 제고한 사례로 평가되고 이러한 문화가 지속된 것으로 보임.
  - 반면 경영진의 갈등으로 인수합병의 시너지효과가 미약해진 씨티그룹의 사례는 은행업과 보험업의 이질성에 대한 우려를 보여주고 있음.
- 금융산업의 겸업화, 다각화가 경기순환에 따라 유행처럼 반복되지 않고 금융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업권간 사업방식과 문화에 대한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 은행업과 보험업 겸영 등 금융산업의 다각화(Diversification)는 경기순환에 따라 강화와 약화를 반복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사업구조 단순화, Back to Basic 등이 확산되고 있음.
  - 1980년대와 90년대 초반까지 금융업 다각화 추세가 둔화되었던 경험이 있었는데, 이 당시에도 북미와 서유럽에서 금융그룹의 Back to Basic 움직임이 있었음.<sup>8)</sup>
  - Back to Basic이 강조된 원인은 다각화로 인한 경영의 어려움(Too Big To Manage), 미미한 시너지 효과, 문화적 갈등 등임. [kiri](#)

8) Rogers · David(1999), 「The Big Four British Banks」.